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24년 KOSPI,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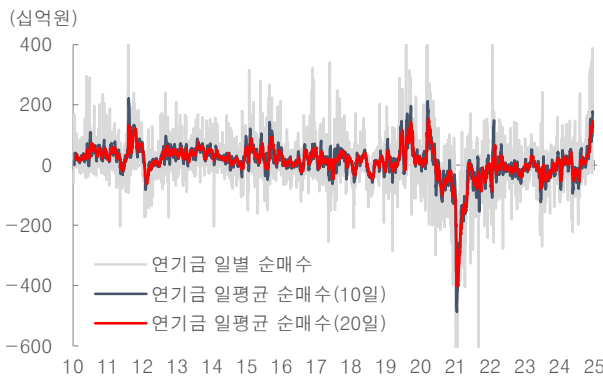
- FOMC 충격, 미국 섀다운 우려로 KOSPI 부진 지속, 2,400선 사수도 불안한 상황
- 현재 KOSPI 부진은 하락 추세의 마지막.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유지 전략 유효
- 1) 중국 경기 회복, 2) 정부 재정 강화, 3) 선행 EPS 반등, 4) 연기금 순매수 등

2024년도 6거래일 밖에 안 남았다. 올해처럼 KOSPI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된 적도, 다양하고 연속적인 이슈와 이벤트, 악재에 시달렸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12월 19일 종가 기준 KOSPI와 S&P500, 나스닥 간 연초 이후 수익률 Gap은 31.26%p, 37.31%p에 달한다. 2000년 이후 KOSPI의 상대적 약세 폭이 가장 크고, S&P500 대비 KOSPI는 4년 연속 Underperform 중이다. 계엄령 사태로 시작한 12월도 19일 FOMC 충격, 20일 미국 정부 섀다운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선을 넘어섰고, KOSPI는 반등은 커녕 2,400선 사수에도 힘겨운 상황이다.

현재 KOSPI는 생각지도 않았던 계엄령 사태까지 겪었다.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웬만해서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억눌려 있고, 증시는 물론, 환율, 채권시장까지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7월 이후 5개월 이상 지속되어 KOSPI의 12월 부진은 이번 하락추세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12월 KOSPI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매집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선, 1) Major 5 Asia와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반전했고, 10월 중순 이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24년 하반기 시작된 중국의 경기부양 드라이브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 시차를 두고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KOSPI 소외현상의 이유 중 하나였던 정책 부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향후 확대재정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는 25년 예산을 상반기 중 75% 집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3) KOSPI 12개월 선행 EPS가 저점을 통과하며 반전을 모색 중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진정시 KOSPI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4) 연기금의 기초적인 비중확대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식비중이 예상대비 2%p 이상 Underweight 폭이 커지면서 연기금은 8월 이후 5.7조원을 순매수 중이다. 비중을 채울 때까지 매수세는 지속되며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할 전망이다. 5) 6개월 연속 월간 수익률 마이너스는 2000년 12월, 2008년 11월 두 번 뿐이다. 두 번 모두 7개월째 플러스 반전에 성공, 1년 뒤 37.5%, 44.6% 상승했다.

12개월 선행 EPS 상승 반전.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